

번역 유형별 번역 사례를 통해 본 한국 고시가 번역의 문제 (1)*

- 황진이 시조 <너 언지>를 중심으로 -

임 주 탁**

차 례

- | | |
|--------------------------------|-------------------|
| I. 서론 | III. 국어시가의 외국어 번역 |
| II. 국어시가의 한어 번역과 현대 한
국어 번역 | IV. 결론 |

국문초록

한국 고시가 번역의 문제는 번역 유형별 번역 사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 결과를 체계적으로 통합하는 방향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글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자유과제 학술연구비(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2014년도 한국문학회 춘계학술대회(2014.5.)의 발표 논문 「한국 고시가 번역의 양상과 문제점」의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작성한 논문이다. 해당 발표 논문은 번역 유형별, 시가 갈래별 사례를 망라하여 논의한 것이어서 학술지 투고 논문의 적정 분량을 초과하기도 한다. 따라서 해당 논문에서 다룬 주요 내용을 시가 갈래별로 구분하여 세 편의 논문으로 수정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후속 논문들은 이 논문의 논의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지만, 갈래별 작품 특성을 고려하는 만큼 각각 새로운 논의 내용을 아울러 포함할 것이다.

** 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은 번역 유형별 번역 사례가 가장 많은 작품 가운데 하나인 황진이 시조 <너 언지>를 통해 한국 고시가에 대한 번역 유형별 번역의 양상을 살피고 문제점과 그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고시가 번역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을 추론해 본 것이다. 번역된 텍스트는 목표 언어가 모어인 독자들이 이해하고 감상하기에 충분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번역 대상 텍스트의 시적 상황과 언어적 맥락이 얼마만큼 충실하게 번역되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너 언지>에 대한 조선시대의 한어 번역은 원전의 시적 상황과 언어적 맥락을 정확하게 번역하였다. 그에 비해 일본 식민지 시대에 이루어진 한어 번역은 시적 상황과 언어적 맥락이 원전과 전혀 달랐다. 이러한 문제점은 신위의 「소악부」에 포함된 한어 번역의 원전을 번역자가 잘못 비정하고, 원전과 한어 번역이 공통으로 함축한 시적 상황과 언어적 맥락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서 생겨났다. 그런데 일본 식민지 시대에 이루어진 원전 비정과 한어 번역의 결과는 이후 <너 언지>에 대한 해석과 번역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너 언지>가 연가(love song)라는 해석이 지금까지도 널리 수용되고 있으며, 조선 시대의 한어 번역에 대한 현대 국어 번역에서 일본 식민지 시대의 한어 번역과 흡사하게 시적 상황이나 언어적 맥락이 모호하거나 원전과 사뭇 다르게 번역되고 있는 데서 그러한 사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너 언지>에 대한 외국어 번역은 일본 식민지 시대의 한어 번역, 원전 또는 조선시대의 한어 번역에 대한 현대 한국어 번역에서와 같이 시적 상황과 언어적 맥락이 모호하거나 원전과 전혀 달랐다. 따라서 원전에 대한 조선시대의 한어 번역과 같은 번역 수준을 보여 주는 원전에 대한 외국어 번역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외국어 번역이 기본적으로 원전에 대한 현대 한국어 번역을 바탕으로 하게 마련이라는 점에서 외국어 번역이 지니는 문제점은 결국 원전 또는 조선시대 한어 번역에 대한 현대 한국어 번역이 지니는 문제점이 거듭 포

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 결과는 한국 고시가의 번역에 다음 사항들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즉, 원전 비평(textual criticism)이 충분히 이루어진 작품을 선정해야 한다는 점, 번역 대상 텍스트와 번역된 텍스트 모두 시적 상황과 언어적 맥락이 분명해야 한다는 점, 현대 한국어 번역이 원전의 창작 상황에 부합하는 해석과 성공적인 외국어 번역에 관건이 된다는 점, 목표 언어가 모어인 독자들이 번역된 텍스트에서 파악하는 시적 상황과 언어적 맥락이 재료 언어가 모어인 독자들이 원전 혹은 현대 한국어 번역에서 파악하는 것과 동일한지가 번역 평가의 중요한 잣대가 된다는 점 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제어 : 한국 고시가 번역, 번역 유형, 한어 번역, 외국어 번역, 현대 한국어 번역, 시적 상황, 언어적 맥락, 황진이, 신위

I. 서론

한국 고시가의 번역은 재료 언어(source language)와 목표 언어(target language)¹⁾의 관계를 기준으로 볼 때 다양한 유형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국어시가 작품의 경우에는 원전(OT=original text)에 대한 한어 번역(TT₁)과 현대 한국어 번역(TT₂), 한어 번역(TT₁)에 대한 한어 번역(TT₃)과 현대 한국어 번역(TT₄), 현대 한국어 번역(TT₂)에 대한 외국어 번역(TT₅) 등이 있고, 한어시가 작품의 경우에는 원전에 대한 한어 번역(TT₆)과 현대 한국어 번역(TT₇)과 외국어

1) 재료 언어는 출발 언어 혹은 출발어, 목표 언어는 도착 언어 혹은 도착어로 번역되곤 한다. 출발, 도착이라는 번역은 번역 과정을 고려해서 고안한 말이지는 하지 만 용어 자체가 가지는 의미를 온전하게 드러내지 못한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번역) 재료 언어, 목표 언어라는 번역어를 쓰고자 한다.

번역(TT₈), 한어 번역(TT₆)에 대한 현대 한국어 번역(TT₉), 현대 한국어 번역에 대한 외국어 번역(TT₁₀) 등이 있었다.²⁾ 한국 고시가의 번역의 문제를 논의할 때에는 이 모든 유형에 해당하는 번역 사례를 면밀히 살펴 필요가 있다.

그런데 한국 고시가의 번역 문제를 다룬 선행 논의는 주로 원전(OT)에 대한 외국어 번역(TT₅, TT₈) 사례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원전과 외국어로 번역된 텍스트를 내용과 형식 면에서 비교하여 적절성 여부를 판가름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전개되어 온 것이다. 하지만 한국 고시가의 외국어 번역이 실제로는 원전이 아니라 원전을 현대 한국어로 번역된 텍스트(TT₄, TT₇)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 번역자가 선택한 현대 한국어 번역 텍스트와 번역자가 번역한 외국어 번역 텍스트 사이에는 적어도 내용 면에서 대부분 중요한 차이가 없다는 점, 그리고 중요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는 번역 대상으로 삼은 현대 한국어 번역 자체가 불완전한 데서 그 원인이 있다는 점 등³⁾은 한국 고시가의 번역 문제에 접근하는 시각과 방법에 상당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글에서는 번역 대상이 된 작품을 중심으로 그와 관련한 모든 유형의 번역 사례를 비교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그 문제점은 어떤 번역 과정에서 왜,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면밀하게 따지고 규명해 보고자 한다.

2) 물론 결과로서의 번역 사례만 두고 볼 때, 국어시가의 번역에는 '원전에 대한 외국어 번역', 한어시가의 번역에는 '외국어 번역에 대한 외국어 번역'도 하위 유형으로 설정할 수 있을 듯하다. 하지만 둘은 모두 '원전에 대한 번역 당시의 한국어 번역'을 바탕으로 하게 마련이라는 점에서 별도의 유형으로 설정하지 않았다. 여기서 '번역 당시'란 말을 쓴 것은 한국 고시가의 외국어 번역이 19세기 말부터 시작되었음을 염두에 둔 것이다.

3) 임주탁(2012), 「한국고전시가의 영어 번역의 양상과 문제점 -고대가요 작품을 대상으로」, 『우리어문연구』 44(우리어문학회), 209-242쪽; 임주탁(2011), 「한국고전시가의 영어 번역의 양상과 문제점 -황진이 시조 작품을 중심으로」, 『어문학』 114(한국문학회), 273-300쪽.

한국 고시가에 대한 번역의 유형은 다양하고, 한 가지 유형에 속하는 번역 사례도 매우 많기 때문에 그 모든 사례를 한 편의 논문을 통해 살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가급적 많은 유형으로 번역되고 번역 사례가 많은 작품을 중심으로 살피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황진이 시조 작품 <늬 언지>를 중심으로 번역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늬 언지>는 한어 번역(TT₁)과 현대 한국어 번역(TT₂), 한어 번역(TT₁)에 대한 한어 번역(TT₃)과 현대 한국어 번역(TT₄), 현대 한국어 번역(TT₄)에 대한 외국어 번역(TT₅) 등 다양한 유형으로 번역된 것으로 확인된다. 또 원전에 대한 한어 번역(TT₁)은 그 자체가 오늘날 번역자에게는 원전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그에 대한 한어 번역(TT₃)과 현대 한국어 번역(TT₄), 현대한국어 번역에 대한 외국어 번역(TT₅)은 한어시가에 대한 한어 번역(TT₆)과 현대 한국어 번역(TT₇), 현대 한국어 번역에 대한 외국어 번역(TT₁₁)의 사례와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목표 언어만을 고려할 때 이들 번역 유형에 속하는 번역 사례들은 적어도 한어 번역(TT₁, TT₃ / TT₆), 현대 한국어 번역(TT₂, TT₄ / TT₇, TT₉), 외국어 번역(TT₅ / TT₈, TT₁₀)이 가지는 공통된 문제점은 최소한 보여줄 수 있다. 따라서 <늬 언지>에 대한 번역 사례들은 한국 고시가의 번역의 문제를 체계적, 종합적으로 살피는 데 매우 효율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I. 국어시가의 한어 번역과 현대 한국어 번역

<늬 언지>의 번역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이루어진 번역 유형은 한어 번역(TT₁)이고, 다음은 이 유형에 속하는 번역 사례로 두루 알려진 번역들이다.

TT₁-①

我來豈無信, 月沈夜三更.
秋風自落葉, 非我惱君情. (이민성(1570~1629), 「聞人唱俚歌韻而詩之」
#1)

TT₁-②

何曾妾無信, 乃與君相欺.
深夜遠來意, 而君諒不知.
鳴風落葉本無情, 渠自爲聲妾何爲. (남구만(1629~1711), 「변방곡」 #8)

TT₁-③ 響屢疑

寡信何曾瞞着麼, 月沈無意夜經過.
颯然響地吾何與, 原是秋風落葉多. (신위(1769~1845), 「소악부」 #36; 「삼
가악부」 #29)

TT₁-①~③을 비교해 보면, 우선 목표 언어의 형식 곧 시 형식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①은 5언 4구, ②는 5언 7언 장단구(총 6구), ③은 7언 4구의 한시 형식이다. 원전을 3행으로 분할할 때, ①과 ③은 원전의 제1행과 제2행을 제1, 2구로 번역하고 원전의 제3행은 제3, 4구로 번역한 데 비해, ②는 제1행을 제1, 2로, 제2행을 제3, 4구로 각각 번역하고 제3행은 제5, 6구로 번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비교는 이미 선행 논의에서 충분히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선행 논의에서는 ①, ③이 한시 형식을 더 많이 고려한 번역이라면 ②는 원전 형식을 아울러 고려한 번역이라는 점에 각별히 주목하였다. 이 점을 바탕으로 미학적 특성의 차이가 논의되었고, 그 논의는 결과적으로 한어 번역의 가치를 드러내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⁴⁾ 하지만 이들 번역이 왜 원전에 대한 ‘가능한 번역’이 되는지는 면밀하게 따져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4) 김문기·김명순(2005), 『조선조 시가 한역의 양상과 기법』, 태학사; 조해숙(2005), 『조선후기 시조한역과 시조사』, 보고서.

물론 세 번역이 가능한 번역이 아니었을 수 있음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세 번역이 모두 원전에 대한 동일한 해석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 동일한 해석이 원전의 시적 상황과 맥락에 부합하고 있다는 사실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 TT₁-①~③의 번역자는 물론 번역 당대의 독자들도 원전과 번역된 텍스트를 함께 경험할 수 있었다면, 독자들은 당연히 원전과 번역된 텍스트를 비교하고 그 번역이 원전에 대한 ‘가능한 번역’의 범위에 드는지 판단해 보았을 것이다. 그러한 판단은 원전에서 분석되는 시적 상황과 언어 맥락이 번역된 한시에서 분석되는 시적 상황과 언어 맥락과 부합하는지 따지는 과정을 필요로 하게 마련이다.⁵⁾ 그 과정을 되밟아보지 않고 판단 결과만을 전제로 수용하는 것은 원전과 원전에 대한 한어 번역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 과정을 건너뛰는 것이다. 더욱이 지금 우리는 원전과 한어 번역의 언어를 익히 알고 있는 독자가 아니다. 원전의 언어는 물론 원전에 대한 한어 번역의 언어도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는 우리가 원전과 원전에 대한 한어 번역에 함축된 시적 상황과 맥락을 번역자나 번역 당대 독자들과 사뭇 달리 파악할 가능성이 없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비록 당대 독자들에게는 원전과 원전에 대한 한어 번역이 가능한 번역으로 판단되었다 해도, 우리도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지 다시금 따져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선차적으로 수행할 때 원전과 한어 번역 사이의 미학적 특성 차이에 주목하는 논의는 설득력이 한층 더 높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TT₁-①~③을 통해 국어시가의 한어 번역의 문제를 다룬 선행 논의에서는 번역 대상 텍스트로 비정한 원전과 한어 번역을 나란히 제시하고 원전과 한어 번역에 대한 현대 한국어 번역(TT₂, TT₄)은 함께

5) TT₁-①~③은 모두 한어 번역의 형식이 번역 당시 통용되던 한시 형식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는 원전이 당대 작가나 독자에서 한시와 같이 ‘시’의 범위에 드는 것으로 인정되었음을 말해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제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TT₁-①~③이 당대 독자들에게 의해서도 ‘가능한 범위’에 드는 번역이었다고 전제한 것이다. 이러한 일반적 관행 때문에 선행 논의들에서 원전이나 각 한어 번역에 함축된 시적 상황과 언어 맥락을 어떻게 분석하였는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고, 따라서 미학적 특성의 차이에 주목하는 논의의 출발점이 되는 원전 비정 작업 결과는 물론 결론적 주장에 동의하기가 쉽지 않았다.

고시가 작품은 글자 하나의 차이로 인해 시적 상황과 언어 맥락이 전혀 달라질 수도 있다. <너 언지>는 바로 그런 작품 가운데 하나다. 이와 관련하여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TT₁-①~②에 대한 한어 번역에 대한 현대 국어 번역 사례에서 TT₁-①~③과 그 원전으로 비정된 텍스트에 대한 이해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TT₄-①-TT₁-①

내 언제 無信했던지
달 기우는 깊은 밤
가을바람에 절로 지는 낙엽은
내가 님(*sic*) 그리는 정은 아니리. (조해숙, 2003:208)

TT₄-①-TT₁-②

어느 때 일찍이 제가 신의 없어서 님(*sic*)을 서로 속였기에
깊은 밤 멀리서 온 뜻을 님(*sic*)은 알아주지 않는가요.
바람에 우는 낙엽은 본시 無情하니 떨어지는 소리를 난들 어찌할까요.
(조해숙, 2003:207)

국어시가의 한어 번역 자료를 다루면서 한어 번역에 대한 현대 국어 번역을 포함하고 있는 논의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런 점에서 조해숙(2003)은 다른 선행 논의에 비하면 그 논의 방식에서 진전된 것이라 할 수 있다.⁶⁾

그런데 인용한 두 번역은 중대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두 번역만을

참고하면 TT₄-①-TT₁-①은 의역, TT₄-①-TT₁-②는 직역으로 각각 분류할 수 있을지 모른다. 의역이란 핵심적인 의미를 목표언어의 독자들이 쉽게 알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TT₁-①, TT₁-②이 각각 TT₄-①-TT₁-①, TT₄-①-TT₁-②와 같이 번역되는 것이라면, TT₁-①은 <너 언지>에 대한 가능한 번역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오늘날 어느 독자가 읽더라도 TT₄-①-TT₁-①과 TT₄-①-TT₁-②에서 전혀 다른 시적 상황과 언어 맥락을 파악할 것이고, 따라서 어느 하나가 <너 언지>에 대한 번역이라면 다른 하나는 그와 다른 텍스트에 대한 번역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TT₁-①, TT₁-②와 같은 번역을 바탕으로 원전과 한어 번역 사이의 미학적 특성의 차이를 따지는 일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TT₁-①~③이 다음과 같이 번역되는 텍스트라면 논의 결과는 사뭇 달랐을 것이기 때문이다.

TT₄-②-TT₁-①

내 왔는데도 어찌 믿지 않으시나, 달도 없는 한밤에.
가을바람에 잎은 절로 떨어지는 것, 내가 당신 마음 괴롭힌 것 아니지요.

TT₄-②-TT₁-②

언제 신의 없이 그대 속였던가요?
깊은 밤인데도 멀리 온 뜻을 그대 정말 모르시나요?
부는 바람 떨어지는 잎은 본디 무정하잖아요, 절로 나는 소리를 제가 어찌할까요?

TT₄-②-TT₁-③ 신발 끄는 소리인가?

언제 신의 없이 속인 적 있었던가요, 달도 없는 밤길을 걸어온 뜻이 없네요.

6) 과문한 탓인지 몰라도 한어 번역에 대한 현대 국어 번역은 조해숙(2003)에서 처음 찾아볼 수 있었다.

바람 소리 땅에 울리는 것을 내 어찌할 수 있을까요, 본디 가을바람에는
지는 잎 많은 것을.

이 세 번역은, 번역의 형식(시 형식)이 다르고⁷⁾ 사용한 어휘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도 TT₁-①~③이 함축하고 있는 시적 상황과 언어 맥락은 물론 시적 상황에서 화자가 가지는 생각이나 감정 또한 동일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동일성은 TT₁-①~③이 원전의 시적 상황과 언어 맥락을 세 번역자 모두 정확하게 파악하였음을 말해 주는 동시에, 번역 당대 독자들에게 원전에 대한 가능한 번역으로 인정되었음을 시사한다. 결국 TT₄-①-TT₁-①~②는 TT₁-①~②에 대한 잘못된 번역인 셈이다.

오역은 그 자체가 문제이기도 하지만 TT₄-①-TT₁-①~②와 같은 오역이 생겨난 원인이 번역자 개인의 한어 독해 능력 혹은 한시 해석 능력에만 있지 않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어 보인다. <너 언지>의 원전 비정이나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도된 시적 상황과 언어 맥락에 대한 학계 일반적 해석에도 중대한 오류가 있었고, 그 오류가 또 다른 오류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듯 보인다. 만일 그렇다면 오류를 바로잡는 일이나 유사한 오류를 줄이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너 언지>에 대한 학계 일반적 해석은 통시적으로 보면 TT₁-③의 원전에 대한 최초의 비정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그 비정 과정과 결과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TT_{1/3}-④ 秋夜長

不知君似妾宵長, 秋月滿庭空斷腸.

葉有聲兮眠不得, 情人來否更商良. (번역자 미상: 김태준, 1934:11)

TT₄-③-TT_{1/3}-④ 가을밤 길어라

7) 한시 2구를 1행으로 번역함. TT₄-①-TT₁-①~②는 이 점에서도 일관성이 없다.

모르겠어요, 그대도 저같이 긴긴 밤에, 가을 달이 뜰에 가득하여 애간장
끓으시는지.

나뭇잎 소리에 잠 못 이루는데, 정든 이는 오지 않아 다시 헤아림만 깊
어지네요.⁸⁾

TT_{1/3}-⑤

失信欺君我未曾, 月沈五夜不來仍.

秋風落葉空多響, 安得伊懷絕愛憎. (권상로(1879~1965), 『퇴경역시집』,
239쪽; 손팔주(1978:60-61)에서 재인용함.)

TT₄-③-TT_{1/3}-⑤

믿음 저버리고 그대 속인 적 내 일찍 없었는데, 달도 없는 한 밤중에 오
질 않으시네.

가을바람에 지는 잎은 부질없이 소리 울리는데, 어찌 사랑하는 마음 끌
고 미운 감정 품을 수 있을까요?.

TT_{1/3}-④와 TT_{1/3}-⑤는 TT₁-①~③의 번역 대상이 된 원전(‘원가(原
歌)’을 비정하는 데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해 온 번역이다. 이 두 번역이
앞의 세 한어 번역과 사뭇 다른 시적 상황과 정서를 함축하고 있다는 점
은 각 번역에 대한 현대 한국어 번역을 참고하면 쉽게 알 수 있다. 그리
고 이 두 번역은 원전 <너 언지>에 대한 가능한 번역의 범위에서 벗어
나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면 왜 이러한 번역이 <너 언지> 혹은 그에 대
한 한어 번역에 대한 한어 번역으로 인정되었을까?

TT_{1/3}-④는 TT_{1/3}-⑤의 번역자가 비정한 원전을 포함하여 신위의 「소
악부」를 새 판본으로 편집할 때 10편의 번역 한시를 추가하여 같은 방
식으로 원전과 함께 제시한 번역(한시) 가운데 하나다. 김태준(1934)에

8) 마음이 처음 움직이는 것을 정(情)이라 하고 정에 따라 헤아리는 것[商量]을 의
(意)라고 한다. 번역자는 정(情), 의(意),商量(商量)의 관계를 이와 같이 이해하였
던 것으로 보인다.

부록으로 실려 있어도 「소악부」의 새 편집본의 편집자가 김태준인지는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김흥규 외, 2012) 번역자를 확정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40편의 한어 번역으로 구성된 신위의 「소악부」가 40편의 한어 번역과 번역 대상이 된 원전을 함께 수록하는 방식으로 재편집되고 10편의 한어 번역이 같은 방식으로 덧붙여지는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이가 TT_{1/3}-⑤의 번역자이고, 그에 의해 재편집된 「소악부」(50편)에서 TT_{1/3}-④과 TT₁-③의 원전이 동일하게 제시되었다는 사실이다.

TT_{1/3}-⑤의 번역자가 번역 대상으로 삼은 원전도 TT₁-③의 원전이라고 제공한 것과 동일한 것임은 물론이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현대 한국어로 번역하면 서로 다른 시적 상황과 언어 맥락을 분석할 수밖에 없는 한어 번역들이 동일 원전에 대한 가능한 번역이라는 인식이 TT_{1/3}-⑤의 번역자만이 아니라 「소악부」(50편)의 편집자, 혹은 「소악부」(50편)를 부록으로 수록한 가집 편찬자에 의해 공유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너 언지>와 그에 대한 한어 번역에 대한 오역(誤譯)과 오석(誤釋)의 단초는 결국 TT_{1/3}-⑤의 번역자에 의한 잘못된 원전 비정과 번역에서 마련된 셈이다.

TT₁-①~③의 번역 대상이 된 텍스트 곧 원전이 다음 OT-②가 아니라 OT-①이라는 사실은 비단 TT₄-②-TT₁-①~③과 같은 번역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OT-①

너 언지 無信하여 님을 언지 속엿판디
 月沈三更에 온 뜻지 전혀 업디.
 秋風에 지는 님 소리야 님들 어이허리오? (#588)⁹⁾

9) 심재완(1972) 편저, 『교감 역대시조전서』(세종문화사)에서 부여한 일련번호를 나타냄. 띄어쓰기와 문장 부호는 필자.

OT-②

너 언지 無信하여 님을 언지 속엿관디
 月沈三更에 올 뜻지 전혀 업니.
 秋風에 지는 님 소리야 닐들 어이허리오?

OT-①과 OT-②를 비교해 보면 두 텍스트는 밑줄 친 ‘온’과 ‘올’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 차이는 시적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TT₄-②-TT₁-①~③을 참고할 때 TT₁-①~③의 번역 대상이 된 텍스트가 OT-①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런데도 TT_{1/3}-⑤의 번역자는 TT₁-①~③의 번역 대상이 된 원전을 OT-②로 비정하고, 자신도 OT-②를 원전으로 하되 TT₁-①~③의 번역을 아울러 참고하여 TT_{1/3}-⑤와 같은 한어 번역을 시도한 것이다. TT_{1/3}-④의 번역 대상이 된 원전은 OT-①~②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또 다른 것일 가능성을 높다. 시적 상황이나 함축된 정서가 OT-①~②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TT_{1/3}-⑤의 번역자는 TT_{1/3}-④의 원전도 OT-②로 비정하였다. 이는 그가 TT_{1/3}-④도 TT₁-③과 같이 OT-②에 대한 가능한 번역의 범위에 든다고 인식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러한 인식이 동일 원전에 대해 전혀 다른 한어 번역이 허용된다는 인식으로 확대되고, 결과적으로 TT_{1/3}-⑤와 같은 번역이 이루어진 이다.

TT_{1/3}-④의 번역 대상이 된 원전이 <너 언지>라는 김태준(1934)의 비정은 수용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TT₁-③만이 아니라 TT₁-①~②의 번역 대상이 된 원전이 OT-①임이 분명하고, TT_{1/3}-④에 함축된 시적 상황과 정서는 TT₁-①~③과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TT₁-①~③의 원전이 OT-②가 아니라 OT-①이라는 사실은 창작 맥락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다음 자료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서화담과 약속이 있어 밤에 갔는데, 화담이 혼자 앉아 쓸쓸히 노래

(A)를 부르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이 노래(B)를 지어 응수하였다.¹⁰⁾

이 자료가 OT-①에 부기되어 전하므로 B는 OT-①을 가리킨다. 그리고 A에 해당하는 노래가 바로 서경덕이 지은 다음 작품을 가리킨다는 것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ㅁ음이 어린 後|니 흐는 일이 다 어리다.
萬重雲山에 어늬 님 오리마는
지는 님 부는 바람에 흥여 권가 흐노라. (#956)

창작 맥락 정보를 담은 자료에서 우리는 OT-①이 서경덕의 이 노래와 화답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서경덕은 황진이가 자신을 찾아와 배우겠다는 서신(書信)을 받고 찾아오겠다고 한 날 일찍부터 황진이를 기다리고 있었다. 달빛이 없는 그믐날이고 계절은 가을이었다. 밤이 다 되도록 기다렸지만 황진이는 오질 않았다. 서경덕은 황진이를 기다리는 것이 부질없는 일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며 자기 행동을 뉘우치기도 하지만, 만남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도 못한다. 그리하여 가을바람 소리, 바람에 떨어지는 나뭇잎 소리가 날 때마다 황진이가 오면서 내는 신발 끄는 소리가 아닐까 확인하는 행동을 반복한다. 그저 바람소리, 낙엽 소리일 뿐임을 거듭 확인하면서 서경덕의 의구심도 깊어 간다. 이러한 서경덕의 심적 상황이 B와 같은 노래에 함축된 것이다.

그런데 서경덕이 B를 부르고 있을 때 황진이는 서경덕을 찾아왔다. 어둠 속에서 자기 형체를 감춘 상태에서 B를 들으며 서경덕이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낙엽 소리를 자기가 오는 기척으로 착각하면서 자기가 약

10) “與徐花潭有約, 夜去之, 則花潭獨坐, 悄然歌之. 暗中, 作此歌而應之.” 『東國歌選』. 심재완(1972), 206쪽에서 재인용. 괄호 안의 A, B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필자가 붙임.

속을 지키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키워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A(=OT-①)를 불러 지척에 있는 서경덕을 비꼰다.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낙엽 소리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연 현상인데 그 때문에 달도 없는 밤길을 힘들게 걸어 찾아온 보람도 없이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쌓아가고 있는 서경덕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감정을 황진이는 OT-①을 통해 표현했던 것이다.¹¹⁾

TT₁-①~③은 번역자들이 이와 같은 창작 맥락을 정확하게 알았기에 OT-①에 함축된 시적 상황과 정서를 정확하게 번역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반해 TT_{1/3}-⑤의 번역자는 OT-②를 TT₁-③의 번역 대상이 된 원전으로 비정한 점으로 미루어 보면 TT₁-③에 함축된 시적 상황이나 정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이 분명하다. 사실 OT-②는 그 자체만 두고 볼 때 어떤 시적 상황과 정서를 함축하고 있는지 가늠하기가 어려운 텍스트다. 텍스트를 이루고 있는 어휘들의 결속관계 곧 시적 맥락을 도무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TT_{1/3}-⑤와 같이 원전과 함축된 시적 상황이나 정서가 전혀 다른 텍스트로 번역된 것은 결국 번역자가 TT₁-③의 원전을 잘못 비정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잘못된 비정에 의한 오역은 이후 <너 언지>에 대한 해석과 번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너 언지>에 대한 현대 한국어 번역으로 TT₂-①이 아닌 TT₂-②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TT₂-①

내 언제 무신(無信)하여 입을 언제 속였관대
월침(月沈) 삼경(三更)에 온 뜻이 전혀 없네.
추풍(秋風)에 지는 잎 소리야 난들 어찌 하리오?

11) 이 작품에 대한 해석은 임주탁(2006), 「이야기 문맥을 고려한 황진이 시조의 새로운 해석」, 『우리말글』 38, 우리말글학회, 199-228쪽 참조.

TT₂-②

내 언제 무신(無信)하여 입을 언제 속였관데
 월침(月沈) 삼경(三更)에 올 뜻이 전혀 없네.
 추풍(秋風)에 지는 잎 소리야 난들 어찌 하리오?

<너 언지>에 대한 해석도 ‘사랑하는 사람을 애타게 그리는 정서’를 담고 있다는 해석이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이 TT₂-①을 대상으로 해서는 가능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너 언지>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은 TT₂-②와 같이 번역된 텍스트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일반적인 해석이 수용자에 따라서 TT₂-②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TT₂-②의 제1, 2행은 그와 같은 해석을 일정하게 뒷받침해 주는 듯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한 해석이 가능한 해석의 하나가 되자면 제3행이 제1, 2행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명확하게 해명해야 하는데, 그 관련성을 밝힐 수 있는 길이 찾아지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TT_{1/3}-⑤의 번역자는 제3행이 제1, 2행과 상호 연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시적 상황을 재구성하여 번역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TT_{1/3}-⑤의 번역자가 TT₁-③에 함축된 시적 상황과 정서를 정확하게 분석하였다면 OT-②를 원전으로 비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원전으로 비정한 것을 보면, OT-②는 물론 TT₂-② 또한 그 자체로 번역될 수 있을 정도로 텍스트의 내적 맥락 곧 어휘들의 통일적인 결속관계가 분명한 번역으로 번역자가 인정했을 수도 있다. 오늘날 <너 언지>를 TT₂-②와 같이 번역하고 <너 언지>에서 간절한 그리움의 정서를 읽어내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사실은 이후 번역이나 해석 주체들도 TT₂-②를 시적 상황과 맥락이 분명한 텍스트로 인정했을 수 있음을 말해 준다.

여기서 우리는 잘못된 해석이 일반적인 해석으로 자리하게 되는 과정과 이유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텍스트 전체의 언어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부분적인 요소를 근거로 시적 상황을 추론하고, 이렇게 추론한 결과를 바탕으로 파악한 지배적인 정서가 곧 작품의 핵심 내용이라고 해석하는 관행이 널리 수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너 언지>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은 시적 상황과 언어적 맥락을 잘못 파악했기에 이루어진 오석(誤釋)이 분명하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한 데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잘못된 해석이 일반적인 해석으로 자리하게 되면서 <너 언지>에 대한 한어 번역(TT₁-①~③)에 대한 잘못된 원전 비평의 결과도 널리 인정되었고, 그에 따라 한어 번역에 대한 현대 한국어 번역도 원전과 다르게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시가 번역은 텍스트를 이루는 어휘를 다른 언어로 바꾸는 과정이지만 번역 대상이 되는 텍스트가 시적 상황과 맥락이 분명하게 파악될 수 있는 것인지 면밀히 따져 보는 작업을 선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번역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루어진 번역은 원전과 전혀 다른 오역이 될 수 있다. <너 언지>에 대한 한어 번역은 가능한 번역의 범위가 어디까지며 그 범위에서 벗어나는 번역이 어떤 것이며 왜 이루어지는지 잘 보여준다. 그리고 왜 한어 번역을 대상으로 하는 논의에서 원전과 원전에 대한 한어 번역뿐 아니라 각각에 대한 현대 한국어 번역을 함께 제시해야 하는지를 아울러 설명해 주고 있다.

번역은 대상 텍스트에 대한 번역자의 이해 여하를 분명하게 드러낸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일을 지나치게 소홀하게 다루어 온 듯하다. <너 언지>에 대한 한어 번역과 현대 한국어 번역 사례들¹²⁾은 그러한 태도가

12) 이 글을 퇴고하는 중에 <너 언지>에 대한 현대 한국어 번역 사례 하나를 발견하였다. “내가 언제 신의가 없어 남을 한번이라고 속였기에 / 달마저 기운 깊은 밤이 되도록 (임이) 오는 기척조차 전혀 없네. / 가을 바람에 지는 낙엽 소리에도 혹시나 하게 되는 심정을 낸들 어찌 하리오.”라는 번역인데, 특이한 점은 이 번역 바로 앞에 OT-①을 인용하고 있는데도 ‘오다’의 행위 주체를 화자가 아닌 ‘임’으로 이해하고 번역하고 있다는 점이다. 백영후(1999), 『황진이론』, 원용문편, 『한국시조작가론』(국학자료원), 194쪽.

왜 문제가 되고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도 보여준다. <너 언지>에 대한 외국어 번역은 현대 한국어 번역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그렇다면 현대 한국어 번역이 가지는 문제점이 해결되기보다는 고스란히 승계되었으리라 추정하는 것은 무리한 것이 아닐 것이다. 실제 외국어 번역은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떤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지 장을 달리 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Ⅲ. 국어시가의 외국어 번역

<너 언지>에 대한 외국어(영어) 번역은 번역자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OT-②에 대한 현대 한국어 번역 곧 TT₂-②를 번역 대상으로 삼았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OT-②나 TT₂-②는 시적 상황을 가늠하기 어려운 정도로 시적 맥락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텍스트다. 특히 제2행에서는 입을 애타게 그리고 있는데도 오지 않는 상황을 분석하더라도 그 상황이 제3행과 어떤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 그런 까닭에 외국어 번역자에 따라서는 제2행과 제3행의 관계를 나름대로¹³⁾ 해석하여 번역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외국어 번역 사례들을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TT₅-① Melancholy Heart

Have I ever failed my word?
 Have I cheated once my lord?
 The moon has sailed across the Milky Way.
Yet my lover did not come today.
 In the autumn wind, the descending leaves depart.

13) 여기서 '나름대로'라고 표현한 까닭은 국문학계에서 제3행을 이와 같이 해석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Ah! Who can soothe my melancholy heart? (Ha, 1960:14-15)

TT₅-②

Have I ever been unfaithful and false to him
That there is no sign of him coming on this deep and dark night?
Could I help the sound of leaves falling in the autumn wind? (Chung,
1985:38)

TT₅-③

When did I ever lack faith in you?
When was I ever untrue to you
when there was no sign that you would arrive
until the small hours?
What could I do with the sound of leaves
that drift by in the autumn wind? (Kim, 1994:176)

TT₅-④

When was I unfaithful to you?
When did I ever deceive you?
The moon sinks, and it's the third watch;
there is no sign of you.
What can I do about
the falling leaves in the autumn wind? (Lee, 2002:92)

TT₅-⑤

When did I ever lack faith in you?
When was I ever untrue to you?
when there was no sign that you would
arrive until the small hours
what could I do with the sound of leaves
that drift about in the autumn wind? (Kim, 2002:88)

TT₅-⑥

When was I faithless,
 when did I ever deceive my love?
 The dark moonless night runs late, and still there's not a sign of
him.
 Leaves falling
 in the autumn breeze, what can I do? (O'rouke, 2005:47)

TT₅-①~⑥를 비교해 보면 두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는 OT-②나 TT₂-②를 번역 대상 텍스트로 삼았다는 것이요(이 점은 밑줄 친 부분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너 언지>가 '연시(戀詩, love poem)' 혹은 '연가(戀歌, love song)'라는 해석을 수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너 언지>의 원전을 OT-②로 비정하고 그것을 TT₂-②와 같이 번역하는 것이나 <너 언지>를 연시 혹은 연가로 해석하는 것은 모두 국문학계에 일반적이다. 여기서 현대 한국어 번역이 지니는 문제점을 외국어 번역이 고스란히 지니게 되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어 번역을 하자면 무엇보다 목표 언어가 모어인 독자가 번역된 텍스트에 함축된 시적 상황과 정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게 마련이다. 실제로 TT₅-①~⑥은 사랑하는 이['임', 청자]를 애타게 기다리는데도 그이가 오지 않는 상황을 <너 언지>의 시적 상황으로 이해하여 번역하였고, 그러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정서, 이를테면 울적함 같은 감정이 느껴질 수 있게 번역하려고 노력하였음이 분명하다. 우리는 OT-②나 TT₂-①의 제1, 2행에서 그러한 상황을 분석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목표 언어가 모어인 독자들도 그렇게 분석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러한 의문과 관련하여 제3행이 서로 다르게 번역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각 번역 사례에서 제3행에 대한 번역문을 반역(反譯)한 것과 비교해

보면 각 번역자들이 제3행과 제1, 2행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였는지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

- ① 가을바람에 낙엽들이 떨어집니다. 아, 누가 내 울적한 마음을 달래 줄 수 있을까요?
- ② 가을바람에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를 내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 ③,⑤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나뭇잎 소리를 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 ④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나뭇잎들에 대해 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 ⑥ 가을바람에 낙엽이 떨어지는데 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①의 번역자는 제3행이 가을바람에 나뭇잎이 떨어지는 현상이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는 동시에 화자의 울적한 마음을 심화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작품의 제목도 ‘울적한 마음(melancholy heart)’이라 붙였다. 그런데 “추풍에 지난 잎 소리야 난들 어찌 하리요?”라는 말에는 화자로서도 그 현상을 어떻게 할[그치게 할] 수 없다는 뜻이 함축되었을 뿐이다. 그것이 영어로 표현되었다고 해서 울적한 정서가 함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①과 같이 번역한 것을 보면 TT₅-①의 번역자는 제3행을 그대로 번역[축어역(逐語譯), 직역(直譯)]할 때 독자들이 그에 함축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따라서 제1, 2행과의 관계를 나름대로 해석하여 번역[C의역(意譯)]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①의 영어 문장이 의역이라면 ②의 영문은 직역에 가깝다. “It cannot be help(어쩔 수 없다).”와 같은 용례에서 ‘help’의 쓰임을 고려하여 가을바람에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를 ‘help’의 목적어로 번역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표현이 영어에서 허용되는지 의심스럽기도 하지만, 더욱 중요한 문제는 제1, 2행에 번역된 시적 상황과 ②의 영어 표현과의 의미 연관성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다. 의미 연관성을 찾을 수 없는 우리말 표현이 영어로 직역한다고 해서 모호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만일 영어에서 허용되는 표현이라면 ③의 영어 표현은 OT-①이

나 TT₂-①의 제3행에 대한 적실한 번역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번역 대상이 된 텍스트가 OT-②가 아니면 TT₂-②임이 분명하고, TT₅-②에서 제3행이 제1, 2행과의 의미 연관성이 모호함도 분명하다. 따라서 TT₅-②는 번역자 자신이 번역 대상 텍스트를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외국어로 번역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⑤의 영어 표현은 반역한 결과만 두고 보면 ②와 유사한 의미를 함축하는 듯하다. 하지만 영어 표현을 비교해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⑤의 영어 표현이 원전의 ‘어찌하다’의 말뜻의 범위를 ‘다루다, 처리하다’ 등으로 제한하는 데 비해, ②의 영어 표현은 그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TT₅-③, ⑤의 번역자와 TT₅-②의 번역자가 제3행을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따라서 제3행과 제1, 2행의 의미 연관성을 서로 다르게 이해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두 번역자가 텍스트의 맥락을 다르게 이해하였다는 사실은 OT-② 혹은 TT₂-②의 시적 맥락이 분명하게 파악되지 않았음을 반증한다.

④의 영어 표현은 그 자체로 ②, ③, ⑤에 비해 좀 더 분명한 뜻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역시 시의 언어적 맥락 속에서 그 표현이 함축하는 의미, 제1, 2행과 맺는 의미 연관성은 모호하다. ⑥의 영어 표현은 이러한 모호성을 나름대로 해소하기 위해 시도된 번역이라 할 수 있다. 가을바람에 낙엽이 떨어지는 현상을 화자에게 울적함을 더하는 계절적 상황으로 번역함으로써 제1, 2행과의 의미 연관성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3행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국문학계에서도 일반적인 것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⑥은 시적 상황과 맥락에 대한 번역자 자신의 해석을 바탕으로 번역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해석은 번역된 텍스트의 독자들을 배려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듯하다. TT₅-⑥은 그 자체로 목표 언어가 모어인 독자들에게도 시적 상황과 맥락이 분명한 텍스트로 수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외국어 번역에서 제3행이 번역자에 따라 전혀 다르게도 번역

된 것은 제1, 2행과의 의미 연관성이 OT-② 혹은 TT₂-②에서 분명하게 파악되지 않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TT₅-⑥은 그 모호성을 없앴으로써 목표 언어가 모어인 독자들도 함축된 시적 상황과 언어적 맥락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한 번역이라 평가할 수 있다. 문제는 TT₅-⑥이 <너 언지>에 대한 가능한 번역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다는 데 있다. OT-①, TT₂-①뿐 아니라 OT-②, TT₂-②에서도 TT₅-⑥에서와 같은 시적 상황과 맥락을 분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번역은 또 다른 창작이라는 관점에서 TT₅-⑥은 또 다른 창작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창작이 이처럼 원전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 기초하고 있다면 TT₅-⑥은 TT₁-④~⑤의 한어 번역과 마찬가지로 <너 언지>의 번역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너 언지>에 대한 한어 번역 가운데 TT₁-①~③도 원전과 다른 언어, 원전과 다른 형식으로 번역되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창작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TT₁-①~③은 원전의 시적 상황과 맥락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초하고 있다. 번역이 또 다른 창작이라는 관점을 수용하더라도 그 번역이 번역으로서의 가치를 지니려면 <너 언지>에 대한 가능한 번역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번역이라면 원전은 번역 대상이 아니라 창작 소재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너 언지>에 대한 외국어 번역 가운데 ‘가능한 번역’의 범위에 들면서도 번역이 또 다른 창작이라는 관점에 모순되지 않는 번역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너 언지>에 함축된 시적 상황과 핵심적인 정서는 맥락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가 있어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물론 그 자료가 애초에 발굴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시기에도 <너 언지>에 대한 한어 번역 TT₁-①~③은 원전과 함께 전하고 있었다. 만일 이 한어 번역만이라도 정확하게 읽었다면 <너 언지>의 원전을 바르게 비정할 수 있고 따라서 그에 함축된 시적 상황을 바르게 추론하여 핵심

적인 정서를 꺾진하게 분석할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너 언지>에 대한 외국어 번역이 지니는 문제점은 통시적으로 볼 때 근대 이전의 한국어와 한어 번역에 대한 현대 한국어 번역이 지닌 문제점에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¹⁴⁾

IV. 결론

이상에서 한국 고시가 작품 가운데 번역 유형별 번역 사례가 가장 많은 작품의 하나인 황진이의 시조 <너 언지>를 중심으로, 번역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그 문제점은 왜 생겨났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그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논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너 언지>에 대한 조선시대의 한어 번역은 원전의 시적 상황과 언어적 맥락을 꺾진하게 번역하였다. 따라서 번역에 어떤 문제점도 없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비해 일본 식민지 시대에 이루어진 한어 번역은 시적 상황과 언어적 맥락이 원전과 전혀 달랐고, 따라서 원전에 대한 가능한 번역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었다. 이러한 오역은 신위의 「소악부」에

14) OT-①/TT₂-①에 대한 외국어(영어) 번역은 다음 번역문처럼 시적 상황과 언어적 맥락이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Have I ever break my word and faked you? I don’t know why I have come here tonight, this deep and dark night? Is it beyond our control that leaves are gone off the trees in the autumn wind, roll over the ground, and make sounds?” 물론 이 번역문은 좀 더 간결한 시적 언어로 다듬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필자가 그렇게 번역할 정도로 영어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전의 시적 상황과 언어적 맥락이 분명한, 산문에 가까운 번역문을 제시해 두어 영어가 모어인 번역자의 손길을 기다리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번역문으로 여전히 영어가 모어인 독자들이 시적 상황과 언어적 맥락을 분명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면, OT-①/TT₂-①과 화답 관계에 있는 서경덕의 시조 작품, 나아가 창작 맥락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도 함께 번역하여 부기하는 방식을 고려해 봄직하다.

포함된 한어 번역의 원전을 번역자가 잘못 비정한 데서 따른 것이었다. 그리고 원전 비정의 오류는 번역자가 신위의 한어 번역이 함축하고 있는 시적 상황과 언어적 맥락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었다. 그런데도 일본 식민지 시대에 이루어진 원전 비정과 한어 번역의 결과는 이후 <너 언지>에 대한 이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너 언지>에 대해 연시 혹은 연가라는 해석이 지금까지도 일반적인 해석으로 수용되고 있으며, 조선 시대의 한어 번역에 대한 현대 한국어 번역에서 일본 식민지 시대의 한어 번역과 마찬가지로 시적 상황이나 언어적 맥락이 모호하거나 원전과 사뭇 다르게 번역되고 있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둘째, <너 언지>에 대한 외국어 번역은 일본 식민지 시대의 한어 번역, 원전 또는 조선시대의 한어 번역에 대한 현대 한국어 번역에서와 같이 시적 상황과 언어적 맥락이 모호하거나 원전과 전혀 달랐다. 따라서 원전에 대한 조선시대의 한어 번역과 같은 번역 수준을 보여주는 원전에 대한 외국어 번역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외국어 번역이 기본적으로 원전에 대한 현대 한국어 번역을 바탕으로 하게 마련이라는 점에서 외국어 번역이 지니는 문제점은 결국 원전 또는 조선시대 한어 번역에 대한 현대 한국어 번역이 지니는 문제점이 고스란히 이양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 결과는 한국 고시가의 번역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문제점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첫째, 번역 이전에 원전 비평(textual criticism)이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 고시가는 문헌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작품이 많다. 특히 시조의 경우 가집에 따라 표기에서부터 어휘, 문장 등이 달라진 이본들이 많다. 그 가운데 어느 것이 시적 상황과 언어적 맥락이 분명한지를 면밀히 따져 원전을 확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는 데 조선시대의 한어 번역이 일정한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원전에 대한 현대 한국어 번역이 작품의 창작 상황에 부합하는 해석과 외국어 번역의 바탕이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함축된 시적 상황과 언어적 맥락이 분명하지 않아 핵심적인 정서를 파악하기 어려운 시가 작품 텍스트는 불완전하다. 원전이 불완전한데 성공적인 외국어 번역을 기대할 수는 없다. 한국 고시가 중 텍스트가 불완전한 작품은 매우 많다. 향가, 고려가요는 물론, 시조, 사설시조, 가사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원전 비평, 해독, 주석 등의 작업 결과를 수렴하는 현대 한국어 번역이 시적 상황과 언어적 맥락이 분명한 텍스트인지 면밀하게 따지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 작업을 수행하는 데에도 조선 시대의 한어 번역은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

셋째, 목표 언어가 모어인 독자들이 번역된 텍스트에서 파악하는 시적 상황과 언어적 맥락이 재료 언어가 모어인 독자들이 원전 혹은 현대 한국어 번역에서 파악하는 것과 동일한지가 번역 평가에 중요한 잣대로 삼아야 한다. 번역은 대상 텍스트에 대한 번역자의 해석에 기초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번역 대상 텍스트와 번역된 텍스트의 해석이 원전에 대한 가능한 해석인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 그런데 19세기 말부터 지속된 한국 고시가의 외국어 번역의 양상을 살피는 논의는 대부분 번역에 대한 번역자의 관점이나 목적, 번역 방식(의미 중심·형식 중심, 의역·직역)에 많은 초점을 맞추어 온 듯하다. 모든 번역을 가능한 번역의 범위에 넣는다고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번역된 텍스트를 매개로 한국 고시가에 대한 이해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잣대를 가지고 번역 사례를 평가하는 작업이 체계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혜정(2014), 『20세기 전반기 고시조 영역의 전개 양상』,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문기·김명순, 『조선조 시가 한역의 양상과 기법』, 태학사.
- 김태준(1934), 『조선가요집성』, 조선어문학회.
- 김흥규 외(2012), 『고시조대전』,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 백영후(1999), 「황진이론」, 원용문 편, 『한국시조작가론』, 국학자료원, 169-198쪽.
- 손팔주(1978), 「신자하의 소악부 연구」, 『논문집』 6, 신라대학교, 41-67쪽.
- 심재완(1972) 편저, 『교감 역대시도전서』, 세종문화사.
- 임문철(2003), 「J. S. 게일의 한국사 인식 연구: A history of Korean people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주탁(2006), 「이야기 문맥을 고려한 황진이 시조의 새로운 해석」, 『우리말글』 38, 우리말글학회, 199-228쪽.
- 임주탁(2011), 「한국고전시가의 영어 번역의 양상과 문제점-황진이 시조 작품을 중심으로」, 『어문학』 114, 한국문학회, 273-300쪽.
- 임주탁(2012), 「한국고전시가의 영어 번역의 양상과 문제점-고대가요 작품을 대상으로」, 『우리어문연구』 44, 우리어문학회, 209-242쪽.
- 조해숙(2003), 「17세기 시조 한역의 성격과 의미」, 『배달말』 33, 배달말학회, 59-92쪽.
- 조해숙(2005), 『조선후기 시조한역과 시조사』, 보고서.
- Chung(1985), Chong-waha trans., *Love in Mid-winter Night-Korean Sijo Poetry*, KPI.
- Ha(1960), Tae Hung trans., *Poetry and Music of the Classic Age*,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Hyun(1960), Peter, trans., *Voices of Dawn: A Selection of Korean Poetry from the Six Century to the Present Day*, London: John Murray.

Kim(1994), trans., *Classical Korean Poetry: more than 600 verses since the 12th century*, Fremont: Asian Humanities Press, 1994.

Kim(2002), Jaihiun trans., *Love Poems from Old Korea in Sijo Form*, Seoul: Iljisa, 2002.

Lee(1964), Peter H. trans, *Anthology of Korean Literature: From the Earliest Era to the Present*. New York: John Day Co., 1964.

Lee(2002), Peter H. edit, *The Columbia Anthology of Traditional Korean Poetry*, New Youk: Columbia University Press.

Lee(2003), Peter H. edit, *A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McCann(2000), David R., *Early Korean Literature: Selections and Introductions*, New York: Colombia University Press.

O'Rourke(2005), Kevin trans., *A Hundred Love Poems from Old Korea*, Folkestone: Global Oriental Ltd.

O'Rourke(2006), Kevin trans. & edit, *The Book of Korean Poetry: Songs of Shilla and Koryŏ*, Iowa: University of Iowa Press.

Rutt(1972), Richard edit., *History of the Korean People: With a Biography of James Scarth Gale*.

<Abstract>

Translating Korean Classical Poems:
What is problematic, important, and needed now?

Yim, Ju-tak*

This paper aims to elucidate what is problematic, important, and needed now in translating Korean classical poetry into other target languages which contain modern foreign language, modern Korean language and old Chinese language, through comparing translated texts with their source language texts. So it deals those issues with all the renderings of a Hwang Jini's *Sijo* work, *Have I ever*, the renderings can be classified by most types of translation.

The results of it are as follows;

1. Most translated lingual texts into old Chinese language (TT₁-1) by three intellectuals in the period of Joseon Dynasty, Korea, do not have any problem because all of them had bilingual competence and could grasp the very inner context (poetic and linguistic context) and meaning of the original text (OT-1).

2. Most translated lingual texts into old Chinese language (TT₁-2) by one or two intellectuals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Korea, have a little serious problems. The translators did not have bilingual competence so sufficient to grasp the inner context and meaning of only the original texts (OT-1, OT-2) but the old Chinese translation by a former intellectual, Shin Wi. In fact, OT-2 is different from

* Pusan National University

OT-1, but it seemed to be the very OT of Shin Wi's rendering version of which OT was not OT-2 but OT-2. In spite of it, the result and contents of their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of OT-2 have had an nation-wide authority as the very one of OT-1 over their modern subordinates after their times.

3. We are able to grasp the same inner context and meaning of the two, the original (OT-1) and the translated text (TT₁₋₁). However, researchers whose mother tongue is Korean have not translated TT₁₋₁ into modern Korean language entirely, or mistranslated it, it is, I think, related to the fact that they could not comprehend the same inner context of meaning of the two like former intellectuals in the colonial period, intellectuals who selected OT-2 as OT of the rendering by Shin Wi.

4. All the translated texts into foreign language (TT₅) have the same problems as their source language texts which were translated into modern Korean language by Korean translators, writers, or researchers (TT₂). While meeting renderings of TT₅, we are not able to grasp the same inner contexts in which all the texts have their own unity of meaning as ones of the original lingual texts (OT-1).

These results implies several meaningful things as follows;

1. Textual criticism about Korean classical poems has not been sufficient for us to translate them into foreign languages.

2. We need to translate all the texts, OT and TTs, into modern Korean language before studying all the renderings of them. It will let us to know whether all the texts and renderings can be acceptable not only to us but also to foreigners.

3. While evaluating if every TT is successful, we have to check if

the inner context and meaning of TT is the same one of its OT or source text because the primary goal of translation is to make readers whose mother tongue is the same one as the target language.

Key Words :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al poetry, types of translation, Old Chinese language translation, foreign language translation, modern Korean language translation, inner context, poetic and linguistic context, Hwang Jini, Shin Wi

■ 논문접수 : 2014년 6월 23일

■ 심사완료 : 2014년 8월 29일

■ 게재확정 : 2014년 8월 30일